

신쾌적 섬유소재 New 세레나디아

일본의 이와데로크한도사는 95년 추동북부터 피부에 부드러운 신쾌적 여성내의를 시판한다.

겨울철의 건조에 대해 우수한 보습성을 갖는 스킨케어소재를 개발하여 제품화한 것으로 「고객으로부터 skincare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」는 것이 이 제품개발의 동기이다.

“New 세레나디아”는 동사가 종래부터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세레나디아 [다후셀(polynosic) 70% × colorfine(상온 - cation 가염 polyester) 30% 혼방]에 천연보습성분 NMF(natural moisturizing factor)를 추가하여 우수한 보습성과 pH balance, 항균성 기능을 갖게 한 것이다.

이번의 개발은 원래 보습성이 많은 다후셀 원단에 보습효과가 우수한 천연 NMF성분을 포함한 약제로 가공한 것이다. NMF는 피부표피 각질층에 있어 수분 보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, 이 약제는 천연식물을 원료로한 매우 각질층 NMF에 가까운 성분으로 SEK Mark 취득과, 안정성확인도 받고 있다.